전국민 AI 활용사례 공모전 시즌3 · 교육·학습

기출만 외운 내가 왕들의 책사가 되었다

한능검 기출 1,150문제에서 뽑은 사실로 쓴
한국사 웹소설 80화.
AI와 함께 쓰고, **다른 AI로 한 줄씩 검사**했습니다.

1,150
기출 문제
(심화 57~79회, 23회분)

7,504줄
문제에서 뽑아
소설에 넣은 기출 사실

80화
구석기부터 현대까지
끊기지 않는 한 이야기

약 53만자
공백 제외
(화당 평균 약 6,600자)

'(가)와 (나) 사이'만 나오면 틀리는 사람을 위해, 낱말 대신 **사람과 장면으로 흐름을 기억**하도록 만든 교재입니다.

1 · 왜 만들었나

낱말만 외우면 흐름 문제에서 무너집니다

기출에 자주 나오는 낱말만 외워 선지에서 답을 고르다 보면, **'(가)와 (나) 사이'**처럼 순서와 까닭을 묻는 흐름 문제에서 무너집니다.

영웅 한 명을 다룬 드라마와 책은 많지만, 그렇게 끊어 보면 시대가 이어지지 않고 망한 나라의 역사는 빠지기 쉽습니다.

그래서 **구석기부터 현대까지 한 사람이 함께 겪는 한 이야기**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

먼저 해 본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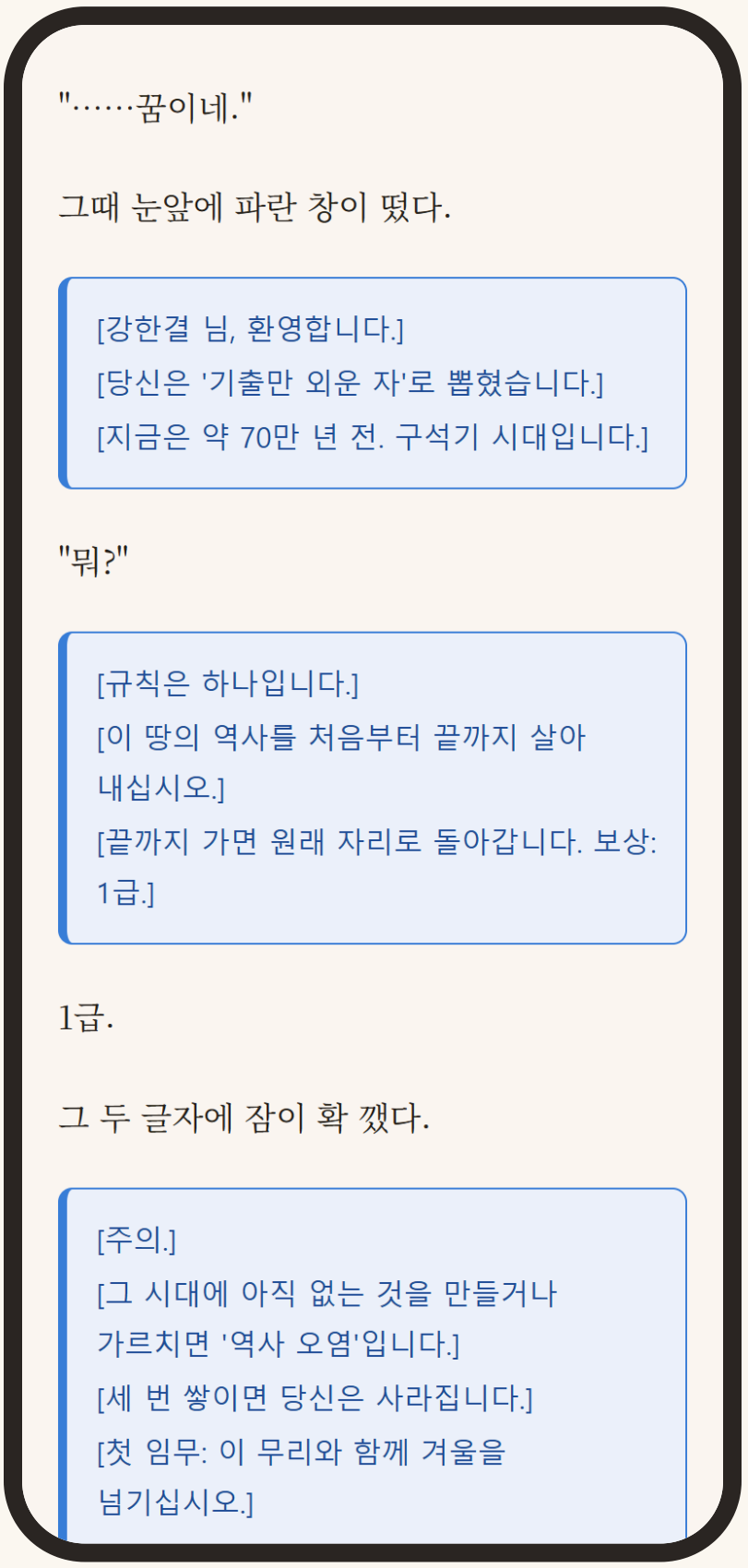
1. **NotebookLM에 기출 5회분**
   팟캐스트·보고서·마인드맵을 만들었지만 '왜 그랬는지' 흐름이 잡히지 않았습니다.
2. **이야기 애니메이션 영상**
   너무 오래 걸리고, 빠지는 기출이 너무 많았습니다.
3. **10월 11일, 글로 읽는 웹소설로**
   기출을 빠짐없이 담을 수 있는 길을 골랐습니다.

2 · 이야기 장치

정답을 말하면 안 되는 주인공

- 1급(80점)에 늘 한 끗 모자란 **79점짜리 수험생 강한결**이 구석기로 떨어집니다.
- 현대까지 살아 내야 돌아옵니다.
- 그 시대에 아직 없는 것을 가르치거나 실존 인물이 할 일을 먼저 말하면 **'역사 오염'**. 세 번 쌓이면 사라집니다.

그래서 주인공은 답을 외치지 못하고, **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곁에서 지켜봐야** 합니다. 이 규칙 하나가 '흐름 이해'를 이야기의 엔진으로 만듭니다.



1화, 처음 뜨는 규칙 창

기출을 놓치지 않는 여섯 단계

1 **기출 뽑기**
AI가 1,150문제를 한 문제씩 읽고 정답·오답 선지·자료 속 사실까지 8,158줄로 뽑았습니다. 자신 없는 62줄에는 (?) 표시.

2 **시대별 정리**
같은 인물·사건끼리 묶어 주제 2,157개, 사실 7,504줄. 줄마다 번호와 출처(회-번)를 달았습니다.

3 **흐름 잡기**
강의 자막을 공부 노트로 정리해 시대 흐름을 잡는 데 참고했습니다.

4 **뼈대와 배정**
80화 목차를 먼저 짜고 번호 붙은 사실을 화마다 나눴습니다.
프로그램으로 세어 보니 빠진 번호 0개.

5 **원고 쓰기**
화마다 배정 목록을 주고 장면으로 쓰게 했습니다. 사실을 빼거나 지어내지 말 것.

6 **따로 검사하고 고치기**
쓴 AI가 아닌 다른 AI가 배정 목록과 원고를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.
보고서 22개, 대조 7,504줄.

> 지시문 핵심: "빠뜨리지 않는 것과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", "확신이 없으면 '확인 못 함'으로 남긴다"

4 · 사람과 AI의 역할

저는 설계하고 골랐고,
AI는 쓰고 검사했습니다

나 (사람)

무엇을·어떤 순서로·어떤 장치로 쓸지 정했습니다.
· 맛보기 원고를 읽고 "너무 좋다, 이대로 다 써 달라, 더 촘촘하게"
· "돌에 꼬리를 냈다?"처럼 뜻이 안 잡히는 말을 짚어 쉬운 말로
· 17화를 줄인 시범본 두 개를 비교해 한쪽을 고르고, 다른 쪽의 좋은 두 줄은 살림

쓰는 AI

Claude Code(Claude Opus 5.5)가 설계대로 장면을 썼습니다. 큰일은 보조 AI에게 나눠 맡겼고, 나눠 맡긴 횟수만 100번이 넘습니다.

검사하는 AI

쓴 AI와 다른 눈으로 기출 사실과 원고를 대조했습니다.
확신이 없으면 고치지 않고 '확인 못 함'으로 남겼습니다.

다른 AI

Gemini로 어려운 낱말 1,445개의 뜻풀이 목록을 만들었고, NotebookLM은 첫 시도에 썼습니다.

지시문 첫머리 세 줄
빠뜨리지 말 것 · 지어내지 말 것 · 모르면 모른다고 적을 것

5 · 거꾸로 따라가기

소설 한 문장이 어느 기출에서 왔는지 번호로 따라갑니다

① 기출 · 78회 41번 (조선어 연구회)

이극로: 1928년 소르본 대학에서 조선의 문자와 말소리를 녹음하고 기록 카드를 남김

↓

② 시대별 정리 · 일제-S201 이극로

(일제-S201-1) 1928년 소르본 대학에서 … 기록 카드를 남김 [78-41]

↓

③ 배정 목록 · 66화에 넣을 기출 사실 107줄

그 가운데 일제-S201-1, S201-2 두 줄

↓

④ 원고 · 66화「말을 모으는 사람들」

1928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조선의 글자와 말소리를 녹음하고 기록 카드를 남겼다. 이듬해 1929년에 돌아와 조선어 연구회에 들었고, 한글을 지키는 일을 이어 갔다.

↓

⑤ 검사 보고서 · 66~68화

S201을 포함한 쪽지 줄은 줄마다 낱말·이름·숫자 모두 원고에 있음을 확인.

모든 사실 줄에 번호와 출처(회-번)가 붙어 있어, 소설에 담은 기출 사실을 문제 쪽에서도, 원고 쪽에서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원문은 [첨부 3].

6 · 따로 검사한 효과

검사가 없었다면 이렇게 틀린 채 남았을 겁니다

고조선 · 2화

~~"그 가운데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연이다."~~

→ "그 가운데 하나, 동북쪽 끝에서 조선과 맞닿은 나라가 연이다."

전국 7웅에서 동쪽 끝은 제

일제 강점기

~~독립 의군부가 "글로만 맞서려 했다"~~

→ "의병 전쟁을 다시 일으킬 준비"

기출과 거꾸로 쓴 것을 바로잡음

조선 전기

~~"정도전이 죽었다."~~

→ "정도전이 이방원의 손에 죽었다."

누가 죽였는지가 시험에 나옴

설정 어긋남 · 3화

~~주인공이 "곡식을 좀 사 두시죠. 쌀 때."라고 귀띔~~

→ 속말로 바꾸고 "그 말은 목구멍에서 도로 삼켰다."

미래 지식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안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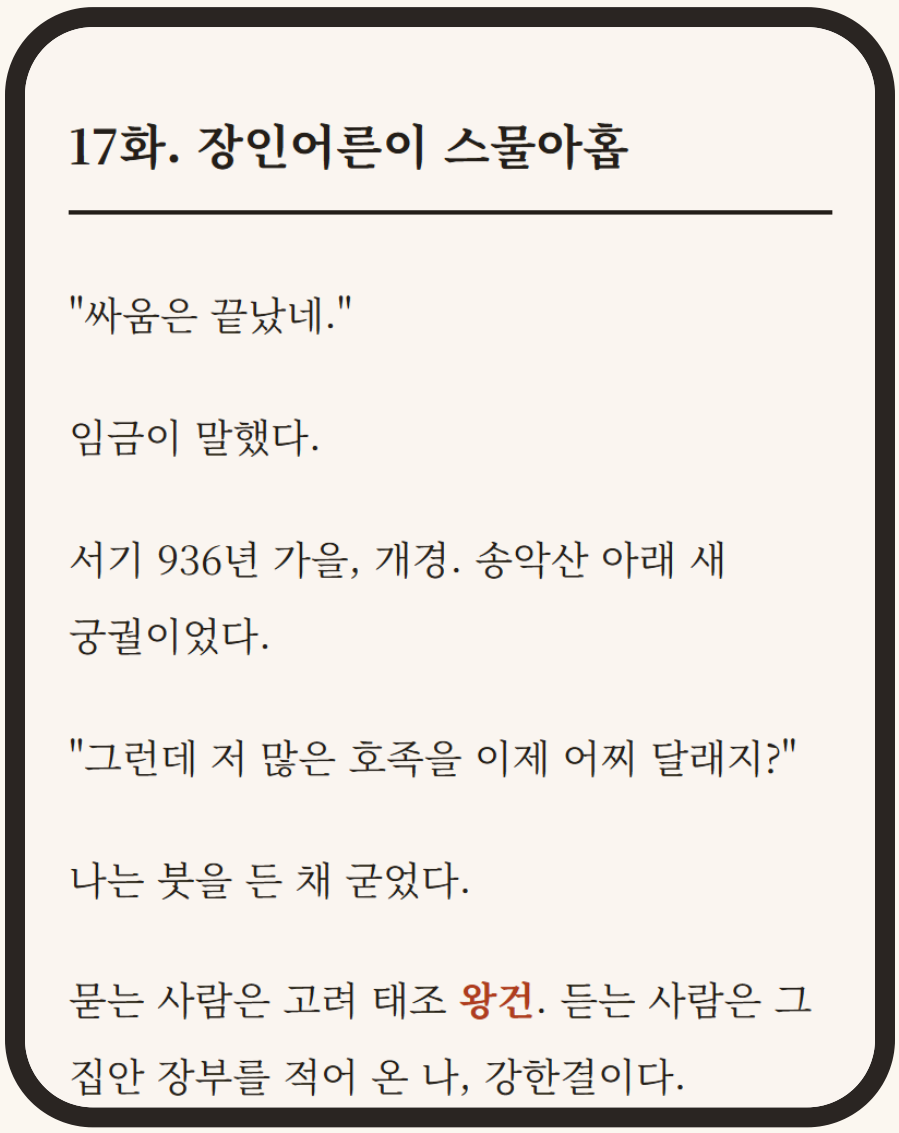
약 120
빠지거나 흐린 곳
넣음

약 250
틀리거나 근거 약한 곳
고침

약 200
'확인 못 함'
사람이 볼 목록으로 남김

7 · 달라진 것

외우려고 펴는 책이 아니라 다음 화가 궁금해서 펴는 책



17화. 장인어른이 스물아홉

"싸움은 끝났네."

임금이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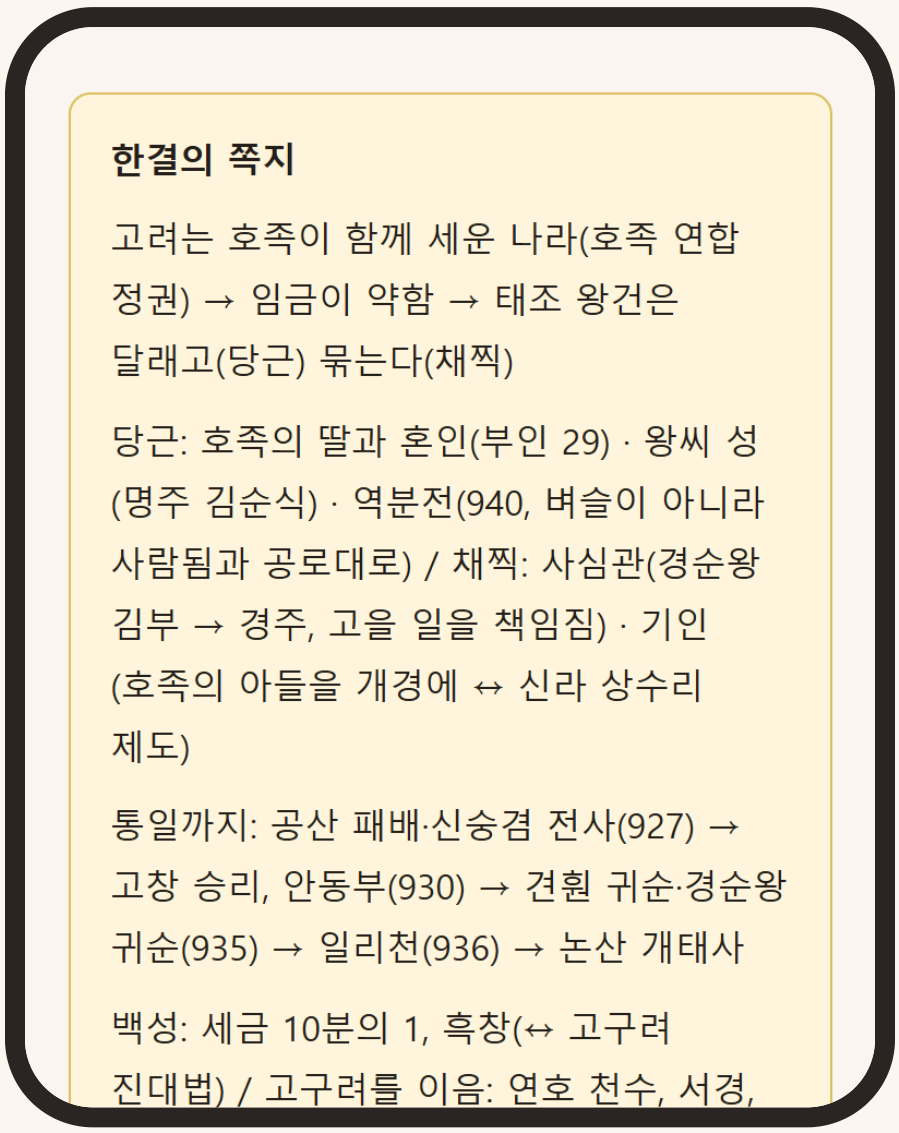
서기 936년 가을, 개경. 송악산 아래 새 궁궐이었다.

"그런데 저 많은 호족을 이제 어찌 달래지?"

나는 붓을 든 채 굳었다.

묻는 사람은 고려 태조 **왕건**. 듣는 사람은 그 집안 장부를 적어 온 나, 강한결이다.

기출 낱말은 주황색



한결의 쪽지

고려는 호족이 함께 세운 나라(호족 연합 정권) → 임금이 약함 → 태조 왕건은 달래고(당근) 묶는다(채찍)

당근: 호족의 딸과 혼인(부인 29) · 왕씨 성(명주 김순식) · 역분전(940, 벼슬이 아니라 사람됨과 공로대로) / 채찍: 사심관(경순왕 김부 → 경주, 고을 일을 책임짐) · 기인(호족의 아들을 개경에 ↔ 신라 상수리 제도)

통일까지: 공산 패배·신숭겸 전사(927) → 고창 승리, 안동부(930) → 견훤 귀순·경순왕 귀순(935) → 일리천(936) → 논산 개태사

백성: 세금 10분의 1, 흑창(↔ 고구려 진대법) / 고구려를 이음: 연호 천수, 서경,

화 끝마다 '한결의 쪽지'

- 웹페이지 하나에 80화와 목차. 폰으로 골라 읽고 어두운 화면도 됩니다.
- 기출 낱말 약 2,700곳 표시, 쪽지 80개로 '원인 → 결과'를 한 줄씩 복습.
- 절반쯤(약 40화) 읽었습니다. 주먹도끼는 '큰손 아저씨가 쥐여 준 돌', 대동법은 '벼슬을 걸고 버틴 김육'으로 기억납니다.
- 아직 시험은 보지 않아 점수로 보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.

8 · 윤리와 책임

지킨 것, 그리고 아직 모자란 것

지킨 것

- 역사 사실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업적과 공은 실제 인물에게 돌아가고, 주인공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게 했습니다.
- 실존 인물의 대사는 장면을 위해 지어 썼습니다. 연도·사건·업적은 기출 사실을 따랐고 검사 AI가 대조했습니다. 깎아내리는 장면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.
- 출처: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57~79회. 문제를 옮기지 않고 뽑은 사실로 새로 썼습니다. 최태성 「심화별개념3」(유튜브) 자막은 개인 공부 노트로만 썼습니다.
- 사람이 다 확인하지 못한 곳이 있어 전체 원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

한계

- '확인 못 함' 약 200곳은 아직 사람이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- 끝내 못 넣은 사실이 몇 줄 있습니다(까닭은 보고서에).
- 화당 약 6,600자로 깁니다. 줄이기는 17화로 시범만 했습니다.
- 쪽지만 모아 보는 복습 화면은 아직 없습니다.
- 한 사람의 경험이고, 시험 점수로 확인한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.

기출이 있는 과목이면 똑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

1. **기출을 한 줄씩 뽑기**
   문제마다 AI에게 읽혀 정답·오답 선지·자료 속 사실을 뽑고, 줄마다 출처(회-번)를 단다.

2. **묶고 번호 붙이기**
   같은 인물·사건끼리 묶고 번호를 붙인다.

3. **목차 먼저, 빠짐 세기**
   목차를 짜고 번호를 화마다 나눈 뒤, 빠진 번호가 0개인지 프로그램으로 센다.

4. **주인공과 규칙 하나**
   '답을 외우면 안 되고 이유를 봐야 하는' 규칙. 화마다 배정 목록을 주고 장면으로 쓰게 한다.

5. **다른 AI로 검사**
   쓴 AI 말고 다른 AI가 한 줄씩 대조하고, 빠진 것·틀린 것·확신 없는 것을 보고서로 남긴다.

> 가장 중요했던 것: 지시문 첫머리에
> **빠뜨리지 말 것 · 지어내지 말 것 · 모르면 모른다고 적을 것**

부록 · 80화 목차 (1~35화)

구석기부터 현대까지, 80화

선사·고조선·여러 나라 1~4화

1 79점짜리 인생, 구석기에 떨어지다
2 너는 누구의 것이냐
3 주인이 바뀌는 날
4 소금 길, 쇠 길

삼국·남북국 5~16화

5 한강의 첫 주인은 글씨 쓰는 사람을 찾는다
6 왕이 죽은 나라의 곡식 장부
7 아버지를 돌에 새긴 아들
8 꼴찌 나라에 줄을 서다
9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날
10 642년, 세 나라가 한꺼번에 뒤집힌 해
11 바다를 건넌 사신, 황산벌의 오천
12 동해의 용이 되겠다
13 피리 소리와 마을 장부
14 바다 동쪽의 큰 나라
15 푸른 바다를 건넌 사람
16 끝에 웃는 사람

고려 17~28화

17 장인어른이 스물아홉
18 책만 읽던 임금의 칼
19 칼 없이 얻은 여섯 고을
20 개경이 불탄 겨울
21 왕자 스님과 돈, 그리고 말 탄 적
22 고인 물
23 관을 벗어 던지다
24 씨가 따로 있나
25 섬으로 간 조정, 뭍에 남은 사람들
26 사위의 나라
27 되돌리는 임금
28 다리를 건너는 사람

조선 전기 29~35화

29 궁궐 이름은 내가 짓겠네
30 아버지와 다른 길
31 스물여덟 자
32 계유년의 철퇴
33 이룰 성(成)
34 사초 한 장
35 두 사신

부록 · 80화 목차 (36~80화)

구석기부터 현대까지, 80화

조선 후기 36~45화

36 길은 빌려줄 수 없다
37 열세 척, 그리고 폐허 위의 임금
38 세 번 달아난 임금
39 북쪽을 치자던 임금, 상복을 다투는 신하들
40 판을 세 번 엎은 임금, 돈이 도는 길
41 탕평, 그리고 뒤주
42 서얼들의 방
43 화성으로 가는 길
44 달이 지고 난 뒤
45 흰 수건을 두른 사람들

개항기 46~57화

46 문을 닫아건 사내
47 도끼를 멘 선비
48 모래 섞인 쌀
49 사흘의 꿈
50 숨어 지낸 십 년
51 녹두꽃
52 갑오년의 법, 을미년의 칼
53 종로에 선 백정
54 황제의 전차
55 오늘 목 놓아 통곡하노라
56 담배를 끊은 나라
57 가세, 서간도로

일제 강점기 58~68화

58 압록강을 건넌 사람들
59 칼 찬 선생, 매 맞는 농부
60 기미년 삼월, 대한민국 사월
61 만주의 총성, 상하이의 선언
62 조선 사람 조선 것
63 저울과 어린이
64 두 번째 만세, 하나 된 깃발
65 시계를 바꿔 찬 아침
66 말을 모으는 사람들
67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
68 며칠만 더 있었더라면

현대 69~77화

69 해방은 왔는데, 선도 같이 왔다
70 반쪽의 첫 투표
71 다리는 끊기고
72 0.33명이 사라진 날
73 강을 건넌 군인, 강가의 기적
74 겨울 공화국
75 광주에서 온 종이 한 장
76 딱 한 해 남았다
77 소가 넘은 선, 마지막 호외

되짚기 78~80화

78 배낭 하나, 지나온 땅
79 이름 없는 이들의 탑
80 (가)와 (나) 사이